백제와 왜국을 돌아보다
- 교토 및 나라 -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안 희 수

1. 일본 내해 세토나이카이

일본은 가까운 나라다. 동경까지 비행기로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다. 서울과 동경 간에는 특별항로까지 개설되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비행기로 다니는 것이 단조로운 사람은 부관(釜關)페리와 신간센(新幹線)을 번갈아 타고 오사카나 동경에 가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물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겠지만 그렇게 가면 비로소 일본도 역시 먼 나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행은 부산에서 오사카(大阪)까지 페리를 이용하였다. 고대 우리나라역사와 관련이 깊은 교토(京都)와 나라(奈良)지방의 유적을 돌아보았다. 이러한 경로를 택하여 오가는 시간을 조금 허비하였지만 일본의 내해인 세토나이카이(瀨戸内海)를 배로 여행하는 각별한 느낌을 맛보았다.

첫째 날 아침 7시 서울을 출발한 대절버스는 중간에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고서도 오후 1시 반에는 부산의 국제부두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여객터미널을 가득 메운 승객들의 승선수속에 두 시간이 걸렸다. 오후 5시에 출항하자 모두 갑판에 나와 멀어지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과거 현해탄을 건넜던 유학생들의 기분을 흉내 내 보았다. 부산에서부터 뿌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졌다. 두 시간 정도 지나자 오른쪽에 검은 섬이 다가왔다. 대마도다.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섬이다. 몇 년 전 이즈하라(厳原)를 방문하였을 때 대마도문화관 벽을 빙 둘러 붙여진 수십 미터 길이의 조선통신사행렬도를 본 기억과 시내의 공동묘지에 쓸쓸히 묻혀있던 면암 최익현선생의 묘지가 떠올랐다. 면암선생은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가서도 왜놈들의 음식으로는 연명하지 않겠다고 끝내 단식으로 순국(殉國)한 분이다.

밤 10시를 지나 칸몽(關門)해협을 통과할 때는 휘황찬란한 시모노세키(下關)항의 야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드디어 세토나이카이로 들어섰다. 간간이 캄캄한 어둠속에 먼 해안의 불빛만이 보일 뿐 선내는 조용하였다.

둘째 날 아침에도 배는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서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오사카항에 정박하였다.

저녁과 아침 두 끼 식사를 배에서 먹고 잠자리도 편안하여 시간에 여유만 있다면 배여행도 할만하였다. 상륙하여 곧바로 버스에 올라 히메지(姫路)성으로 향했다. 히메지성은 일본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원형보존도 잘 되어, 나라의 호류지(法隆寺)와 함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제일 먼저 등록되었다고 한다. 봄비 속에 성 주변을 걸으며 바라보는 천수각의 위용이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해자를 사이에 두고 넓은 성터에는 이제 막 피어나려는 벚꽃이 비를 맞아 봄의 정취를 자아내었다.

천수각(天守閣)에 올라 주변을 내려다보니 온통 꽃 천지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역사적 유물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감정적 앙금이 안타깝다. 해가 저물어 도착한 교토의 숙소는 가모가와(鴨川) 옆 이시쵸쇼기쿠엔(石長松菊園)이라는 깨끗한 호텔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모가와 강변과 교토의 밤거리를 구경하였다.

2. 일본 불교의 본산 히에이잔(比叡山)

셋째 날, 오늘도 흐린 하늘에 빗발이 떨어진다. 일찍 출발하여 오쓰(大津)에 도착하였다. 오쓰는 나당(羅唐) 연합군에 패한 텐찌(天智) 천왕이 백제부흥을 포기하고 백제유민을 이끌고 신백제(新百濟)를 건설하려는 웅지를 품고 당시의 오오미(近江)지방에 건설한 도시이다. 텐찌천왕은 이곳에서 왜(倭)라는 이름을 일본(日本)으로 고치는 등 과감한 개혁을 하였다. 시청 옆의 미이데라(三井寺)를 거쳐 신라선신당(新羅善神堂)이라는 작은 건물을 구경하였다. 이 건물은 시라기사부로(新羅三郎)를 모신 곳으로 별로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 뒤쪽 숲길을 10분가량 올라가니 전통 한국 묘지 형식으로 조성된 사부로의 묘가 나타났다. 후에 미나모토(源)라는 성을 하사받고 최초의 막부정권을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1147~1199년)의 조상이다.

버스를 타고 히에이잔(比叡山) 정상에 오르니 동쪽 아래로 넓은 비와코(琵琶湖)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난다. 비가 내리다 햇빛이 났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날씨다. 일본의 사찰들은 나라(奈良) 시대에는 시내에 지어졌으나 헤이안쿄(平安京) 시대에는 산속으로 이전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정상에는 엔략쿠지(延曆寺)라는 거대한 절이 있다. 이 절은 일본 불교의 큰 축을 이루는 천태종(天台宗)의 본산사원(本山寺院)으로서 대대로 불교대학을 열어 수많은 일본의 고승을 배출하였다.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의 승려 사이쵸(最澄 ; 767~822年)가 개창하였다. 절을 올라가는 길목에는 일본 고승들의 화상(畵像)들이 그려져 있어 일본 불교사의 대강을 알 수가 있다. 엔략쿠지의 중심 건물은 곤봉쮸도(根本中堂)로 절 내부의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한 것이 한국 사찰의 밝은 분위기와 매우 대조적이다. 곤봉쮸도 앞으로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면 학문의 보살인 문수보살을 모신 문수루(文殊樓)가 있다. 공부 잘 하기를 빌거나,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참배하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눈에 띄는 비석이 있다. 문수루 옆에 최근에 세운 장보고(張保皐) 기념비가 그것이다. 비문(碑文)은 일본의 명승으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에 다녀온 엔닌(円仁) 스님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바탕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엔랴쿠지의 개창주인 사이쵸부터 엔닌, 엔친(円珍) 등 이 절의 주요한 인물들이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른바 도래인(渡來人)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다.

헤이안 시대에는 각 사찰의 승려들이 무장하여 그 영향력이 교토 정치계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였다고 한다. 히에이잔이 특히 그 중심에 있었는데, 이들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에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이에 오다노부나가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승려들을 공격하여 물리쳤고 패퇴한 승려들이 히에이잔에 모여 항거하자 산 전체를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승려들이 산에서 나오길 기대한 것이었으나, 결국 승려들은 아무도 산을 나오지 않고 그대로 불타 죽었다. 오다노부나가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불교의 세력을 꺾었지만, 이 만행이 부하들의 신망을 잃는 계기가 되어 결국 교토 시내의 혼겐지(本願寺)에서 제1가신이었던 아케지미츠히데(明智三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히에이잔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 유물 유적이 있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긴 하지만, 교토 시내로부터 조금 떨어진 서북 지역의 외진 산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은 좀체 찾기 어려운 곳이다. 이번의 답사가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었다.

엔랴쿠지를 돌아보고 산 아래로 내려와 깅가쿠지(銀閣寺)를 구경하였다. 깅가쿠지의 쇼잉쯔꾸리(書院造り)는 본래 일본 귀족들의 풍류를 위해 지어졌으나 나중에는 일본 전통가옥의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 깅가쿠지를 둘러본 후 약 1.6Km의 '철학의 길(哲学の道)'을 걸으며 일본고대의 여류시인 중 한명인 오노노고마찌(小野小町)에 대한 이야기로 한바탕 웃었다. 이 길은 비와코에서 히에이잔을 넘어 끌어들인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생긴 길로 교토의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이라고 한다.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은 교토제국대학에서 강의하던 근대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키타로(西田幾太郎; 1870~1945년) 교수가 이 길을 자주 걸었던 것에 기인한다. 난간에 기대어 시 한 수 적어보았다.

〈세심(洗心)〉

- 철학의 길가 찻집 -

벚꽃이 물위에 반쯤 눈 감고
작은 찻집에 앉아 마음을 닦네
이십대에 이 길 걸었다는 백발신사

화려한 벚꽃송이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네.
꽃이야 봄마다 다시 피려니와
흘러간 물 돌아올 리 없어
걷던 걸음 멈추고 뒤돌아보니
예쁜 꽃길이 물 따라 오네.

철학의 길이 끝나는 곳에 난젠지(南禪寺)라는 아름다운 절이 있다. 대체로 교토의 절들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다. 난젠지는 조선에 불경을 요청하여 조선에서는 특별히 간경도감(刊經都監)을 두어 불경을 보내주었으나 임진왜란 때는 침략에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불경을 약탈하였다고 한다.

난젠지를 지나 시내로 내려오면서 무린앙(無隣庵)에 들렀다. 이곳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1903년 러일전쟁을 모의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야마가타아리토모(山縣有朋),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가츠라타로(桂太郎), 고바야시쥬타로(小林寿太郎) 등이 앉아 전쟁을 모의한 탁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무린앙의 서양식 건물 내부에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설명문을 읽으며 이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가츠라타로(桂太郎)는 1884년 참모본부의 관서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사까와카게아끼(酒勾影信) 중위를 시켜 광개토대왕의 비석을 탁본시키고 고대사를 조작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명분을 만든 자일뿐만 아니라 1901년 일본의 11대 내각총리대신이 되어 1910년 우리나라를 합병하는 원흉이었다.

그리 넓지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저택에서 무서운 음모가 꾸며졌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차올랐다. 무린앙을 지나 코다이지(高台寺), 엔키리진자(縁切り神社)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꽃망울로 화사한 교토의 거리를 햇빛과 빗방울이 교대로 적셨다. 엔키리진자는 말 그대로 인연을 끊는 것을 기원하는 절로 일본식으로 수많은 소원이 종이쪽지에 써져 나뭇가지에 매어져있었다. 그들의 다신적(多神的)인 성향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저녁식사는 가모가와변에 있는 고급식당 강코(かんこ)에서 회석요리로 교토지방의 특식음식인 두부 신선로를 먹었다.

3. 가츠라가와(桂川)와 아라시야마(嵐山)

넷째 날.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는 듯 맑은 하늘을 보여준다. 오늘은 교토의 서쪽을 주로 볼 계획이다. 교토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두 개의 하천이 있다. 동쪽의 것을 가모가와(鴨川)라

부르고 서쪽의 것을 가츠라가와(桂川)라 부른다. 가츠라가와강변을 백제계 유민이 정착하여 제방을 쌓고 홍수를 막아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가모가와와 가츠라가와는 남쪽으로 흘러 요도가와(淀川)로 합류해 오사카만으로 들어간다.

비가 내린 후 햇빛이 나니 비를 맞은 꽃봉오리들이 햇빛을 반사하여 상쾌하기 그지없다. 처음 방문한 곳은 텐류우지(天龍寺)로서 교토의 서쪽 아라시야마(嵐山) 자락에 있다. 넓은 정원과 사찰 내 건물들을 둘러보았다. 건물 내부는 넓은 다다미방과 마루로 되어 시원한 공간을 만들었다. 마루를 걸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는 밤에 침입하는 닌자(忍者; 몰래 침입하는 자객)에 대한 경계조치라고 한다. 절에서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나라 시대나 헤이안쿄 시대의 교토 사찰들은 오늘날처럼 수행 도량으로써만 쓰인 것이 아니라 공경(公卿)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소나 문화생활공간으로 쓰였다고 한다. 건물주위의 전형적인 정원을 둘러보면서 일본사람들의 산뜻한 국민성의 유래를 생각해 보았다.

일본정원은 크게 고산수식(枯山水式)과 지천식(池川式)으로 나누어지는데, 흰모래나 작은 돌조각들을 가래(우리 농가에서 곡식을 말릴 때 쓰는 기구) 자국이 나게 정돈해 놓은 방식을 고산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석(壽石)이나 분재(盆栽)와 같이 독특한 미를 창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닌자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해변가에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세우고 모래를 곱게 빗질하여 놓았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텐류우지(天龍寺)의 법당내부와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면서 사찰 뒤로 도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라시야마 정상이었다. 앞에는 깎아지른 깊은 계곡에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가츠라가와의 상류라고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교토의 지형이 아늑한 분지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삐 발길을 움직여 코류지(廣隆寺)에 들렀다. 신라계인 하타씨(秦氏; 가야계 신라도래인 집단)가 세웠다는 코류지에는 성덕태자가 하사한 미륵반가사유상(彌勒半跏思惟像)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보인 미륵반가사유상과 너무도 닮아 한반도와의 관련설을 추측하게 한다. 코류지를 본 후 교토의 대표적 고적이라고 하는 류안지(竜安寺)와 킹카쿠지(金閣寺)를 구경하였다. 둘 다 '교토관광' 하면 언제나 그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유명해서 나도 이미 대여섯 번을 둘러본 사찰들이다. 류안지의 돌 정원(石庭)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산수식 정원이고, 순금으로 칠해진 킹카쿠지의 본당은 1956년『신조(新潮)』에 연재되어 당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을 들끓게 했던 미시마유끼오(三島由紀夫)의 동명 소설로 더욱 유명해진 건물이다. 미시마는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 이찌가야주둔지동부방면총감실(市ヶ谷駐屯地東部方面総監室)에서 일장기를 머리에 두르고 극우적인 연설을 한 후 할복자살하였다.

시간은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도중에 '시우(時雨)'라는 팻말이 있어 잠시 한가한 마음을

가져보았다. 점심식사 후 고쇼(御所)와 니조죠(二條城)를 구경하였다. 고쇼는 일본 천황이 거처하던 왕궁에 해당하고 니조죠는 에도시대에 장군이 상경하였을 때 머무르던 임시거처(離宮)이다. 실제로 권력은 장군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쇼는 지금처럼 훌륭한 건물이 아니었다고 한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장군이 상경하여 건네준 돈으로 살아가는 천황은 장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니조죠가 훨씬 멋지게 꾸며져 있었다고 한다. 명치유신 후에 권력이 천황에게 돌아간 후에 지금처럼 증축한 것이다. 명치유신으로 천황이 권력을 잡을 때(1868년) 니조죠에서 이른바 대정봉환(大政奉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교토거리는 간무천황이 헤이안쿄(平安京)를 건설할 때(당나라의 장안을 모델로 하였다고 함) 거리를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하고 동서방향의 길을 북쪽에서부터 1조, 2조, … 순으로 10조까지 이름을 붙였다.

고쇼 입장은 미리 신청을 하고 엄격한 시간을 지켜 관람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도 3시부터 35분간 삼엄한(?) 통제 하에서 경내를 구경하였다. 고쇼를 구경하고 나오니 바로 이웃에 도지샤(同志社)대학이 있었다. 도보로 10분 정도에 대학 구내에서 윤동주(尹東柱)와 정지용(鄭芝溶)의 시비를 볼 수 있었다.

윤동주는 동경의 와세다대학에서 도지샤대학 영문과로 전학한 후 한글로 시를 쓰는 등 불온한 조선인으로 낙인찍혀 고등계형사의 감시를 받아오다 1943년에 체포되었다. 체포 후 마지막 6개월간은 큐슈감옥에 있다가 1945년 2월16일에 옥사하였다. 꽃 같은 나이에 슬픈 인생을 살다간 젊은이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정지용의 향수를 읊조리면서 비가 분수처럼 뿌려지는 도지샤대학을 떠났다. 결국 일본의 어디를 가든 우리의 슬프거나 분노가 끓어오르는 역사를 대하게 되어 역사과의 학술(學術)조사는 늘 학술(學酒)조사로 끝난다.

4.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임진왜란(壬辰倭亂)

그러나 오늘은 이것보다 더한 울화통 터지는 곳을 한 곳 더 보아야 했다. 교토박물관은 아깝게도 관람시간이 끝나 보지 못하고 바로 옆의 귀무덤(耳塚)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전공을 나타내는 근거로 조선인의 귀(실제로는 코(鼻)라고 하여 비총(鼻塚)이라 불렀으나 하야시라이잔(林羅山)이 이총(耳塚)이라 기록함.)를 잘라 소금에 절여 가져오게 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귀를 모아 무덤을 만들었다. 같은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귀무덤에 대한 설명이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과거 일본인들이 귀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귀무덤을 만들었다는 그럴싸한 설명을 들어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귀신이 된다고 믿는다.

일본에 잡신이 많은 것도 그러한 신앙 때문이다. 귀가 잘려 죽은 원통한 조선인들도 모두 일본에 원한을 품은 신(鬼神)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그 신들의 앙갚음할 것을 두려워하여 귀들을 한곳에 모아 무덤으로 만들었다.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귀들을 감시하고 위압하기 위한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토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이니 그를 위해 조성한 토요쿠니진자(豊國神社; 1599년 8월 18일 豊臣秀吉이 63세에 죽은 후 풍국묘(豊國廟)를 조성하고 후에 그를 모시는 신사로 개칭함. '호코쿠진쟈'라고 읽기도 한다.) 앞에 조선인의 귀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의 귀신더러 책임지고 제어하라고 한 셈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논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히데요시 당신이 죽였으니 죽어서도 당신이 책임지고 감시하라는 의미다. 더욱이 무덤위에는 속에 갇힌 귀신들을 누르도록 탑을 세워놓았다. 아! 원통한 일이로다.

풍국묘를 세운 후 일본승(日本僧) 낭카겐코(南化玄興)라는 자가 "태양의 나라 일본에 일세(一世)에 호사(豪奢)를 누려, 바다보다도 깊고, 산보다도 높은 태평의 길을 열었다."라고 명문(銘文)을 써 붙이자 마침 이곳을 찾아왔던 조선의 유학자 강항(姜沆)은 이글을 뭉개버리고 다음과 같은 비판문을 써 붙였다고 한다.

반세경영토일배(半世經營土一杯)
십층금전만최귀(十層金殿謾崔鬼)
탄환역락타인수(彈丸亦落他人手)
하사청구권초래(何事靑丘捲土來)

(秀吉의 반세경영의 성과는 겨우 흙 한 잔에 지나지 않고/
묘지에 솟아있는 십층의 황금누각도 허무할 뿐이다./
작은 총알 같은 땅도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겠지/
이런 보잘것없는 인물이 어찌 우리조선의 푸른 강산을 침략하였는가?)

강항은 정유재란 때 왜장 토도타카토라(藤堂高虎)에게 끌려온 포로의 몸이었다. 그는 일본에 체류(1597. 11~1600. 5)하는 2년 반의 짧은 기간 일본에 유학(儒學; 朱子學)을 가르쳐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일본유학의 시조가 되었다. 지금도 간사이(關西)지방 곳곳에 그의 동상과 사적이 남아있다.

토요쿠니진자(豊國神社)도 지금처럼 웅장하게 치장한 것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라고 한다. 도쿠가와막부시대(에도시대)에는 풍신수길은 별로 추앙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명치유신은 막부를 무너뜨린 정권이니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豊臣秀吉의 묘지와 신사를 크게 중창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귀무덤을 뒤로하고 우리는 나라현에 있는 텐리시(天理市)로 떠났다. 텐리시는 천리교도를 위하여 일본정부가 특별히 행정구역을 할애한 특례지역이라고 한다. 천리교는 교주되는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 여사가 1838년에 신탁을 받아 창건하였다. 처음 천리교는 교리의 전도를 위해 천리외국어학교(10개 학과)를 세웠다. 전후에 한국이 독립하자 조선어학부를 설치하고 경성제국대학의 다카하시(高橋) 교수를 영입함과 함께 조선에 관련된 자료를 대량 입수하였다. 그 결과 현재 천리대학도서관과 박물관은 조선어연구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덴리98쯔메도코로(天理98詰所(숙소))에 도착하여 넓은 다다미방에서 아침 6시에 기상 신호에 따라 일어나고 공동화장실과 공동욕실을 사용하면서 좋은 경험도 하였다.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학생들의 공중도덕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목욕탕에서 물을 낭비하고 수건이나 물바가지를 함부로 어지럽게 던져놓는 사소한 것들(?)이 얼굴을 뜨겁게 하였다.

5. 나라의 이소노까미신궁(石上神宮)과 칠지도(七枝刀)

다섯 째 날. 맑은 날씨라고는 하지만 바람과 구름과 비가 오락가락하여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야했다. 아침에 천리대학교 구내를 걸은 후 이소노까미신궁(石上神宮)으로 갔다. 이소노까미신궁은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숲은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신성한 숲이라고 한다. 이소노까미신궁은 이세신궁(伊勢神宮)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궁중의 하나로 이곳에는 한일고대사논쟁의 하나로 문제가 되는 신검과 칠지도(七枝刀)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칠지도란 가지가 일곱 개인 칼로서 일본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신비스러운 칼이다.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오던 이 칼은 1874년(명치7년)에 간마사또모라는 어용학자에 의해 발굴되었다. 문제는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銘文)이었다. 일본의 극우 어용학자들은 이 명문을 해석하여 한반도의 백제왕이 고대 일본의 신공황후(神功皇后)라는 인물에게 신하의 예로서 바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칠지도와 광개토대왕비는 명치유신이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으로 여기에 교묘한 일본의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의해 간파되고 있으나 아직도 역사왜곡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이소노까미신궁을 뒤로하고 법륭사에 도착하였다. 법륭사는 고구려의 담징이 일본 성덕태자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으로 유명하지만 초상화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모사본만 남아있다. 다만 날아갈 듯한 팔작지붕(한국식 기와지붕)의 법당 속에 나라시대의 불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일본사찰의 법당을 보면 불상들이 두서너 줄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치유신 이후 사찰을 정리하면서 절의 불상과 보물을 폐기하는 대신 한쪽에 몰아넣는 폐불훼석(廢佛毁釋)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법륭사 근처에 있는 고분군을 돌아보았다. 고분들은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형식으로 주위를 깊은 해자가 둘러져서 항공사진으로 보지 않는 한 묘지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들 중에는 아직 발굴을 하지 않은 것들도 여럿 남아있다고 한다.

이어서 다카마쓰쯔까(高松塚)고분으로 향하였다. 이 고분은 비교적 최근(1970년대)에 발굴된 것으로서, 고분 내부에는 네 벽면과 천장에 선명한 채색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벽화 중에는 주작(朱雀), 현무(玄武), 청룡(靑龍), 백호(白虎)와 함께 28숙(宿)의 별자리가 함께 그려져 있어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짐작케 하였다. 고분에 별자리가 그려지는 것은 한반도만의 특징으로 중국에는 없다고 한다.

해질녘에 우리는 서둘러 하세데라(長谷寺)로 향하였다. 일본에 하세데라라는 이름의 사찰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꽃이 아름다운 절로서 유명하다. 다섯 시가 지나서야 도착한 하세데라는 이미 어둠에 쌓이기 시작하여 서둘러 입장하였다. 다행인 것은 입장료 받을 시간이 지나 표 받는 사람은 퇴근하고 무료로 경내를 구경하는 행운을 얻었다(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는지도?). 높은 산중턱에 높은 법당이 하얀 벚꽃 속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 조용한 경내를 우리들만이 마음껏 구경하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었다.

6. 웅장한 도다이지(東大寺)와 퇴락한 아스까데라(飛鳥寺)

여섯째 날. 아침 일찍 도다이지(東大寺)를 구경하였다. 거대한 불상(불상 15m, 대좌 3m)을 쇠를 녹여 주조한 후에 외부건물을 지었다. 도다이지는 745년에 창건하여(경주 불국사와 거의 같은 연대) 신라로부터 화엄학을 전수받아 지금도 일본 화엄학의 중심지이다. 건물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재미있다. 8세기경 도다이지를 건축한 쇼무(聖武)천황은 인원을 동원하는 문제로 고민하다 마침 민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교키(行基)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스님은 쾌히 협조를 허락하고 민중들에게 불법을 설하면서 노력보시(努力普施)를 권장하였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간단히 큰절을 세웠다고 한다. 교키대사는 왕인박사의 후손으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를 저술한 백제 유민 오오노야스마로(太安萬侶)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동대사를 구경한 후 바로 이웃한 쇼소잉(正倉院)을 보러 갔다. 쇼소잉은 일본 황실의 보물을 보관한 창고로서 이곳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신라의 촌락문서도 보관되어있다고 한다. 신라 4개 촌의 면적, 인구, 경작지, 밭의 주인은 물론 과실수, 소와 말의 변동사항이 3년 간격으로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문서들이 불경 속에 끼어있었다니.

일본 최초의 절이며 백제계인 소가(蘇我)씨족의 씨사인 아스까데라(飛鳥寺; 처음 이름은 법흥사(法興寺))는 지금은 다른 절에 비하여 초라하지만 백제계 사람 쿠라쯔쿠리노토리(鞍作止利)가 만든 대불(大佛)이 있다. 무쇠를 부어 만든 대불은 오랜 세월동안 온갖 역사적 풍상을 겪었고 특히 안면에는 불에 그슬린 흔적이 완연하다. 그러나 대불의 얼굴에 감도는 미소는 다른 여느 절의 불상에서 보는 미소와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어떤 고난이라도 다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강인함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쿠라쯔쿠리노토리의 할아버지는 백제에서 건너간 시바닷도(司馬達等)라는 불교신자였다. 과거에 일본 불교의 총본산으로 번성하던 흔적도 없이 밭 가운데 퇴락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7. 귀국하는 선상(船上)에서

이것으로 일본에 남아있는 옛 선조들의 문화유적을 간단하게 돌아보았다. 그야말로 주마간산(走馬看山)이었다. 그러나 과거 교토를 구경할 때에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던 곳들에 우리의 심금을 아리게 하는 슬픈 역사가 숨어있음을 듣고 배웠다.

문화유적에 빈틈없이 남아있는 백제를 비롯한 삼국의 흔적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억지가 기분을 씁씁하게 한다. 한일 간에는 미묘한 오해와 애증(愛憎)이 깔려있다. 차라리 남남이었다면 간단히 화해할 수 있는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서는 씻을 수 없는 반감과 증오로 재생산되는 원인을 알게 된 듯하다. 사이메이(齋明) 천왕의 두 아들인 텐찌(天智) 천왕과 텐무(天武) 천왕 간의 세력싸움에서 텐무계가 승리함으로써 한일 간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최인호의 잃어버린 왕국에 내용일부를 인용해 본다(잃어버린 왕국 5권 250쪽).

“天智계는 비록 백제가 멸망하였으되 한반도와의 연계를 꿈꾸고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며, 과거는 미래와 이어지는 징검다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며 天武계는 한반도는 이미 망하고 떠나온 古土로서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과거와의 단절만이 현재, 즉 신생 일본의 정신적 독립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에 내려오는 속담에 ‘강한 것에 감겨라’라는 말이 있다. 일본인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것을 알아보고 숭배한다. 돌아오는 페리가 대마도를 지날 때의 감회를 읊었다.

〈대마도를 지나며〉

고향집 낯선 얼굴이
가슴 아리게 하듯

대한해협 한 가운데
높은 산 땅덩어리
민족의 원망 받으며
눈앞을 스쳐간다

지금은 남의 땅

교토 · 나라(京都 · 奈良) 여행기를 쓰기에는 본인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여 춘계학술고적답사자료집을 참고하였음은 물론, 최인호 씨의 '잃어버린 왕국'(최인호, 1986. 12. 宇石)을 다시 정독하였다. 본 여행기의 역사적 인물과 사적에 얽힌 교정을 보아주신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서의식 교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유명사의 한자 발음표시는 우리나라 발음과 일본의 음이 엇갈리게 표시된 점 사과드린다.